



제주중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주도축구협회 제공)

제주중 축구 '2025년은 최고의 해'

전국소년체전 동메달 이어 K리그 주니어 A권역 준우승 차지

제주중학교가 전국소년체육대회 동메달에 이어 K리그 주니어에서 준우승을 확정지으며 화려하게 2025년을 마감했다.

신병호 감독이 이끄는 제주중은 지난 15일 제주시 외도구장에서 열린 2025 전국 중등 축구리그(K리그 주니어) A권역 천안시FC와의 경기에서 9-1 대승을 거뒀다.

제주중은 전반 19분 이준우의 선취골과 38분 신지호의 골로 2-1로 앞선 뒤 후반 들어 7골의 골 폭축을 터트리며 A권역 최다골 기록을 작성했다. 권역 득점 2

위 우라사키리쿠를 비롯해 이준우와 신지호가 나란히 멀티골을 터트렸다.

이날 승리로 승점 38점(11승 5무 4패)을 확보한 제주중은 오는 18일 예정된 아산FC와의 경기에 관계없이 FC서울에 이어 2위를 확정지었다. 제주중이 K리그 유소년 리그에 참가한 2019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다.

올 시즌 제주중은 8개 팀이 속한 리그 A권역에서 선두 FC서울(1무 2패)과 수원 FC(3무) 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챙겼다. 무엇보다도 리그 절반을 원정 경기로 치러야 하는 악조건에서 거둔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

신병호 감독의 지휘 아래 2년 전부터 심영성·박진욱 코치의 뒷받침이 이뤄지면서 공수 조화를 겸비한 팀으로 성장시킨 게 주요한 것을 평가된다.

더욱이 올해 졸업반 선수 4명이 제주 SK U18로 진출하게 되면서 저학년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었다.

한편 제주중은 올해 도내 대회 석권은 물론 지난 5월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리그 C권역 1위인 현대중(울산HD 15)을 격침시키며 동메달을 획득해 2025년을 자신들의 해로 만들었다.

홍성배 기자 andhong@samdaillbo.com

김세영, LPGA BMW 챔피언십 1R 10언더파...5년 만의 우승 도전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12번째 우승을 거둔 뒤 좀처럼 승수를 쌓지 못하던 김세영이 5년 만의 우승 도전에 나섰다.

김세영은 16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천785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30만달러)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8개를 합해 10언더파 62타를 쳐 오후 3시 40분 현재 단독 1위에 올랐다.

1번 홀(파4)에서 첫 버디를 잡아내며 기본 좋게 출발한 김세영은 6번 홀(파5)에서 이글을 넣으며 단숨에 선두권으로 점프했다.

2020년 2승을 거둔 김세영은 이후 좀처럼 우승권에 들지 못하다가 지난해 2

위 한 차례, 3위 3차례를 기록하며 반등 움직임을 보였다.

올해엔 6월 이후에만 3위 3차례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는 2013년 8월 홍순상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솔라시도-파인비치 오픈 3라운드에서 기록한 코스레코드(8언더파 64타)도 깼다.

린디 덩컨(미국)이 8언더파 64타로 2위, 다케다 리오(일본)가 7언더파 65타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동맹과 함께하는 휠체어농구' 열린다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18일 오후 2시 제주 탐동광장서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센터장 양용석)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제주 탐동광장에서 '동맹과 함께하는 휠체어농구 코트리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스포츠 캠페인이다.

'농구장에서는 나이도, 성별도, 장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 아래 슬로건 '편견을 막고, 인권을 쏜다!'를 내세워 스포츠 속 인권 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농구를 통해 차별 없

는 스포츠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농구 인플루언서 '동맹(Dongman)'이 함께한다.

이날 장애인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휠체어농구(3대3) 경기가 진행되며, 동맹의 대표 슬로건 'Trust you, Throw it(너를 믿고 던져라)'를 콘셉트로 참가자들이 휠체어농구를 직접 체험하고, 협동과 신뢰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홍성배 기자

andhong@samdaillbo.com



제주SK FC의 남태희.

(제주SK FC 제공)

제주SK, 대전 상대로 무승 고리 끊는다

최근 9경기 무승...18일 원정경기서 남태희 활약 기대

제주SK FC(이하 제주)가 대전하나시 티즌을 상대로 무승의 고리를 끊는다.

제주SK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3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대전과 격돌한다.

최근 9경기 연속 무승(3무 6패)를 기록한 제주(승점 32점)의 입장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다.

파이널 라운드까지 단 1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리그 11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이렉트 강등이 되는 최하위 대구(승점 26점)와의 격차도 승점 6점으로 더욱 좁혀졌다. 쫓고 쫓기는 생존 경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으려면 승점 쌓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선봉장은 단연 남태희다. 남태희는 공격 지역에서 영리한 탈압박과 안정적인 볼 소유가 가능하다. 팀을 구해내는 클러치 능력도 뛰어나다.

지난 31라운드 전북과의 홈경기에서는 막판 극적인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7일 대전 원정에서도 경기 종료 직전에 천금 같은 동점골로 팀을 구해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5골 중 4골이 추가시간에 나왔으며, 이 중 3골은 후반 추가시간에 나왔다.

남태희는 "아직 포기할 단계가 아니다. 기회는 있다. 팀 분위기를 계속 살리면서 반드시 잔류하겠다. 모든 구성원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으며 제주 팬들에게 승리를 선사하고 싶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홍성배 기자 andhong@samdaillbo.com

감귤 신품종 분양

2025년 최고 품종안내

만감류(기술원 보급종)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아마나스, 황금향, 탐나는 봉, 카리향

은주
유라조생, 하례조생, 오히라베니(궁천베니), 궁천, 고림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근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감귤묘목

▲유라조생 2년생 4년생
▲천혜향 2년생 3년생
▲궁천 3년생

·황금향 ·레드향 ·한라봉
그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 010-2699-2355

국립중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무병묘>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6000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3,0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묘입니다.

<도내/국내육성품종>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포트묘>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복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 장원농장